

1982學年度 碩士學位 請求論文

濟州方言의 終結語尾 研究

—動詞의 終結語尾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李 東 林

東國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鄭 榮 珍

1982學年度 碩士學位 請求論文

濟州方言의 終結語尾 研究

—動詞의 終結語尾를 中心으로—




鄭 榮 珍

指導教授 李 東 林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鄭榮珍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82年 / 2 月 日

主 審	崔 世 秋	
副 審	李 東 林	
副 審	金 某 培	

東國大學校 大學院

濟州方言의 終結語尾 研究

——動詞의 終結語尾를 中心으로——

鄭 榮 珍

目 次	
I. 緒 言	2.4 請誘法語尾
II. 本 論	2.5 感歎法語尾
1. 終結語尾의 分類	III. 結 論
2.1 平叙法語尾	參考文獻
2.2 疑問法語尾	
2.3 命令法語尾	

I. 緒 言

濟州方言의 研究가 대부분 言語地理學에서 立證해 주는 絕海 孤島의 方言, 僻地의 方言이라는 面을 強調하면서, 古代言語形態가 가장 많이 殘存해 있다 하여, 國語史의인 面 특히, 音韻論的인 研究와 形態論的 研究가 많이 이루어졌다. 濟州方言(이하 方言이라 함)의 語彙面에서의 研究는 거의 完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그러나, 音韻, 形態論的인 研究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것은 體言類에 대하여 많이 行하여지고 있고 方言의 特徵을 거기서 찾아왔다²⁾. 한편으로는, 方言의 時制(Tense)와 相

1) 小倉進平(1945), 石宙明(1947), 玄平孝(1962).

2) 金亨奎(1974)「韓國方言研究」서울대출판부

李榮寧(1957)“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東方學志 3」

(Aspect)에 대한 研究와 尊卑法, 叙法에 대한 研究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³⁾ 方言의 전모가 드러나 보인 듯하지만, 필자는 方言文法을 記述함에 있어서, 發話(Utterance)의 終結語尾가 方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終結語尾의 하위범주(sub'categorization)를 설정하고 지금까지 研究方法으로 채택하여 왔던 尊卑法에 의한 終結語尾 分類에서 벗어나, 文의 구성은 話者, 聽者, 發話上의 人物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⁴⁾고 보아, 이들에 따른 各 形態素를 밝히고, 그 形態素들의 意味論的 機能과 發話에서의 그 連結條件을 分析 考察함으로써, 終結語尾의 實相을 밝혀보고자 한다.

本考에서는 文의 種類를 叙述文, 疑問文, 命令文, 請誘文, 感歎文으로 하고⁵⁾, 이에 따라 終結語尾—平叙法語尾, 疑問法語尾, 命令法語尾, 請誘法語尾, 感歎法語尾로 分類하였다. 이와 같이 分類한 平叙法語尾의 정리는 표현 형식에 따르고, 疑問法語尾는 표현 형식과 Wh-疑問文, Q-疑問文의 要素를 덧붙여 정리하려 한다. 이 외에 命令法語尾와 請誘法語尾가 그 形態는 同一하면서도 語調(Intonation)에 의하여 서로 對立됨을 보이고, 각 發話에서 上昇語調(rising Intonation)와 下降語調(falling Intonation)의 쓰임을 밝히려 한다.

그리고, 本考에서 든 發話의 例들은 필자가 濟州方言의 原語民(native speaker)으로서 직접 택한 것들이나, 간혹, 方言 資料集에서도 引用했음을 밝혀 둔다.

3) 玄平孝;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 博士學位論文(1974) pp. 126~161.

4) 박창해; “한국어구조론 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67) pp. 88~91.

5) 이 分類는 그 基準을 학교문법에 둔 분류이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分類의 例는 註 13 참조

6) Wh-의문문과 Q-의문문에 대하여서는 *Jacobs/Rosenbaum*의 견해를 따름.
Jacobs/Rosenbaum: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1968) p. 150

Ⅱ. 本 論

1. 終結語尾의 分類

終結語尾의 分類는 叙法과 時制와의 關係에서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⁷⁾.

$$\left[\begin{array}{l} \left\{ \begin{array}{l} (ㄴ/는) \\ (겹) \\ (았/었)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다 \\ (느/으)냐? \\ 구나! \\ (아/어)라. \\ 자. \\ (으)렴/마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l} \text{현재} \\ \text{미래} \\ \text{과거} \end{array} \right] + \left\{ \begin{array}{l} \text{평서법} \\ \text{의문법} \\ \text{감탄법} \end{array} \right\} \text{ 두루 쓰임.}$$

$$\left\{ \begin{array}{l} \text{명령법} \\ \text{청유법} \\ \text{응락법} \end{array} \right\} \text{ 동사에 쓰임.}$$

이는 평서, 의문, 감탄법에만 각각 현재, 미래, 과거時制가 연결될 수 있으며, 명령, 청유, 응락법에는 時制가 올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명령, 청유, 응락법은 動詞에서만 가능하고, 形容詞에는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本考에서는 動詞의 終結語尾만을 대상으로 論述하거나, 위에서 말한 終結語尾의 규정에서 先語末語尾와 語末語尾의 關係를 보면, 그 間이 되는 문제가 尊卑法이 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尊卑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의 主流는 年齡의 上·下, 地位의 等差, 身分의 高·低 등을 감안하여 相對的, 對人的 關係, 對話者 사이의 發話上에 나타나는 言語表現 일체를 包括하여 尊卑法이라는 견해⁸⁾와, 이와 같은 尊卑法과 終結語尾의 關係에 의해서 해라체, 하게

7) 金敏洙 ; 「문법」 어문자(1981) pp. 68~71

8) 李崇寧 ; “국어학연구” 「진단학보 25, 26, 27」(1964)

李翊燮 ; “국어경어법의 체계화와 문제” 「국어학」(1974) pp. 39~64.

玄平孝 ; *Ibid* p. 56

체, 하오체, 합소체, 반말로 分類하는 견해가 있다⁹⁾.

그러나, 本考에서는 話者와 聽者 간의 표현 형식에서 終結語尾는 결정된다고 보고, 문장의 구성을 $[NP_1[NP_2[NP_3[(NP_4)VP_1S_1]VP]S_0]$ ¹⁰⁾으로 설정하여 VP_1 의 자질은 NP_1 과 NP_2 의 관계에서 결정되고, NP_1 과 NP_2 의 관계는 N_1 과 N_2 의 자질에 따라서, $N_1 > N_{2,1}$, $N_1 < N_{2,2}$, $N_1 = N_{2,3}$.

$$N_2 \longrightarrow \begin{bmatrix} N_{2,1} \\ N_{2,2} \\ N_{2,3} \end{bmatrix} \text{ 이 성립되어}$$

- a) $N_1 > N_{2,1}$ 의 경우 : 話者가 年上, 上位, 高寸, 不知者, 大衆(A type)
- b) $N_1 < N_{2,2}$ 의 경우 : 話者가 年下, 下位, 下寸(B type)
- c) $N_1 = N_{2,3}$ 의 경우 : 話者나 聽者가 同年, 친구일 경우(C type)

이 된다는 견해¹¹⁾에 따라 方言에 있어서도 N_1 의 자질 및 連結條件은 NP_1 과 NP_2 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終結語尾 하나하나의 어휘자질과 連結條件의 제시를 試圖하려 한다¹²⁾.

叙法에는 先語末語尾에 의한 直說, 回想, 推測, 意圖法 등이 있으나 本考에서는 先語末語에 의한 叙法을 意味論的 機能으로 처리해서 그 連結條

9) 최현배 ; 「우리말본」, 정음사(1937) p. 309

10) 성낙수 ; “釋譜詳節에 나타난 動詞의 終結語尾研究”,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연구회 (1975) pp. 97~100

11) 박창래 ; *Ibid* p. 91를 따르면서 A, B, C type을 설정했다.

12) 濟州島方言에서는 C type을 A type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표현형식은 A type과 B type으로 줄여 설명하려 한다.

13) 叙法의 分類에는 여러 견해가 있다. 人文系 高校用 文法教科書에 나타난 叙法分類는 다음 표와 같다.

著者別	叙法分類	명서법	의문법	명명법	감탄법	응답법	칭유법	약속법
李熙昇		○	○	○	○	○	○	○
李明權, 李崇寧 梁柱東, 金敏深		○	○	○	○	○	○	
康允浩		○	○	○	○		○	○
鄭寅承, 강복수 李乙煥		○	○	○	○		○	
최현배, 허은정		○	○	○			○	

件을 다루고, 語末語尾로 표현되는 叙法만을 대상으로 해서 叙法을 平叙法, 疑問法, 命令法, 請誘法, 感歎法으로 分類한다¹³⁾.

2.1. 平叙法語尾

平叙法語尾는 方言의 終結語尾중에서도 그 形態가 다양하게 實現된다.

2.1.1 /-ㄴ다/

平叙法語尾 /-ㄴ다/의 形態 分析에 대해서는 대개 두가지의 견해가 있다¹⁴⁾. 필자는 方言에서의 /-ㄴ-/을 平叙法の 形態素로 보는 견해²⁾를 따르면서 發話에서의 連結條件을 살펴 보려 한다.

- ㉠ 우리 성 냐 설월 간다. (우리 형님 내일 서울 간다.)
- ㉡ 가의 저녁의 온다. (그 아이 저녁에 온다.)
- ㉢ 철순 학교에 뺑간다. (철수는 학교에 다닌다.)
- ㉣ 헛 서으로 진다. (해는 서쪽으로 진다.)

發話(1)에서의 표현 형식은 [+ [+NP_{2.2.3}] + ____]에 의한 發話로서 이는 곧, $N_1 > N_{2.2}$, $N_1 = N_{2.3}$ 인 경우로서 [-Honorific]의 자질을 갖게 되며 動詞의 자질이 [+Action]³⁾을 가진다. 그러므로, 平叙法語尾/-ㄴ다/는 [+Action]動詞에만 연결이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音韻論的 連結條件을 살펴 보면, 先語末語尾의 末音이 모음인 경우에만 連結이 가능하며, ㉠㉡는 N_1 의 「추정(presumption)」을, ㉢는 「경험(Experience)」, ㉣는 변함없는 자연법칙에 따른 「예기(Expectation)」의 意味機能을 가진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1) 첫째는 /-ㄴ-/을 단순히 時制上의 形態素라하여 現在形의 形態素로 보는 견해(이희승 최현배), 둘째는 時相한편으로만 보는 견해가 있다(이승녕).
 2) 현명호, 김홍식, 강근보; 「제주도 방언의 活用語尾에 대한 研究」 제주대 학논문집6(1974) p. 18
 3) 성낙수; 「濟州島 方言의 統辭論的 研究」 국어국문학 68, 69(1975)의 動詞 하위법주 참고

$$Vst [+Action, +Vowel]Afx^{4)} \left[\begin{array}{l} \text{[Persumption]} \\ \text{[Experience]} \\ \text{[Expectation]} \end{array} \right] / \text{ㄴ} / \text{다} / \text{[Honorific]} \text{]}$$

이다. (A type)

2.1.2. /-나/

方言의 終結語尾 /-나/의 形態를 分析한 總래의 研究를 보면, 直설법 형태소 /-ㄴ- /과 /-아/(平叙法語尾)로 分析하면서 2.1.2의 /-ㄴ다/와 同一한 意味機能을 가진다고 하였다⁵⁾. 그러나, 필자는 /-나/와 /-ㄴ다/는 다른 形態로 高찰하고자 한다. /-ㄴ다/에 의한 發話를 보면,

- ㉠ 우리 성 널 서월 간다\
- ㉡ 가의 저녁의 온다\
- ㉢ 철순 흑교에 멩긴다\
- ㉣ 헨 서으로 진다\

등이 있는데, 만약 /-나/와 /-ㄴ다/와 同一하다는 觀點에서 發話 ㉠~㉣에 /-나/를 투입(input)시켜 보면 a'~d'와 같이 될 것이다.

- a' 우리 성 널 서월 가나.
- b' 가의 저녁의 오나/
- c' 철순 흑교에 멩기나/
- d' 헨 서으로 지나/

로 변하여서 a'에서는 意味가 통하지 않게 되고, b'~d'에서는 下降語調(falling Intonation)가 上昇語調(rising Intonation)로 바뀌어 平叙文이 疑問文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終結語尾도 平叙法語尾가 疑問法語尾로 實現된다. 따라서, 필자는 /-나/와 /-ㄴ다/를 독립된 終結語尾로 본다. 그 發話의 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Vp \rightarrow V + Afx$ 로 구성된다고 보고, *Suffix* 대신 *Affix*라고 한 것은 이미 구성요소중에는 일종의 접요소(infix)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5) 현명효, 강근보, 김홍식; *Ibid* p.20

㉔ 저 불은 잘 들나\ (저 말은 잘 된다)

㉕ 난 아무거나 잘 먹나\

㉔~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는 先語末語尾 末音が 자음인 경우에만 連結되는 制約을 받으면서 N_1 이 N_2 에게 N_3 에 대한 「추정」이나 「경험」을 표현하는 意味論的 機能을 지닌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 -Vowel]Afx \left[\left[\begin{matrix} \text{Presumption} \\ \text{Experience} \end{matrix} \right] / \emptyset / \right] / 나 / [-Honorific]$

이다. (A type)

2.1.3. /-생이여/

㉔ 가인 지브 갈 생이여. (그 아이는 집에 갈 것이다.)

㉕ 우리 성 낼 을 생이여. (우리 형은 내일 을 것이다.)

㉖ 가인 지브 간 생이여. (그 아이는 집에 가버린 것 같다.)

㉗ 가인 밥 먹은 생이여. (그 아이는 밥 먹어버린 것 같다.)

發話 ㉔~㉗에서 얻어진 /-생이여/는 冠形詞形語尾 /-ㄴ, -ㄹ/에만 連結이 가능하다. 따라서, /-생이여/의 /-생-/은 불완전명사로 形態分析이 가능하겠고, /-이여/만이 平叙法語尾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意味論的 機能을 살펴 보면 ㉔㉕는 N_1 이 N_3 의 動作을 「예기」하는 것이고, ㉖㉗는 N_1 이 N_3 의 動作을 「추정」하는 표현이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 \left[\text{NMsf} \left[\begin{matrix} \text{Presumption} \\ \text{Expection} \end{matrix} \right] / ㄴ, ㄹ / [\text{Non/생 / }] 이여 / [-Honorific] \right]^{6)}$ 이다. (A type)

6) i) $Vp \rightarrow V + Afx$

ii) $V \rightarrow Vst [+Action]$

iii) $Afx \rightarrow \text{NMsf} + \text{Nom}$

iv) $\text{NMsf} \rightarrow \text{Noun Modifier suffix}$

v) $\text{Nom} \rightarrow \text{bound Noun} ([+D-])$

vi) $Vst \rightarrow 가-, 오-, 먹-, \dots$

vii) $\text{Noun Modifier suff} \rightarrow ㄴ, ㄹ,$

viii) $\text{bound Noun} \rightarrow \text{생}$

2.1.4. /-브렀네/

方言에서 다음과 같은 問答을 흔히 들을 수 있다.

- ㉔ 가이 지브 이수과? (그 아이 집에 있습니까?)
 가이 서월 가브렀네. (그 아이 서울로 가 버렸다.)
 ㉕ 가이 언제 가수과? (그 아이 언제 갔습니까?)
 가이 오늘(어제) 가브렀네. (그 아이 오늘(어제) 가 버렸다.)

發話㉔㉕에서 實現된 /-브렀-/은 표준어 ‘버리+았→버렸’에 걸맞는 것으로, 助動詞 ‘버리(다)’에 過去時制 ‘았’의 配合으로 形態分析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語尾는 /-네/ 뿐이다. 따라서, 語尾 /-네/가 完了相을 나타낼 때에는 /-브렀-/의 先行配合으로써 表現된다.

- ㉖ 난 지브 가네. (나는 집에 간다.)
 ㉗ 난 밥 먹네. (나는 밥 먹는다.)

에서 처럼 /-브렀-/이 사용됨이 없이 /-네/가 語幹에 직접 연결되면서 N_i 가 자신의 動作의 「진행(Progress)」을 言述해 주기도 한다.

/-네/의 形態分析은 /-ㄴ-/과 /-에/로 分析하는 견해도 있으나⁷⁾, 本考에서는 하나의 形態로 다룬다⁸⁾.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 +Vowel]Afx \left[\begin{array}{l} [sf_{TA}[Completion/브렀/]] \\ [Progress/\theta/] \end{array} \right] /네/[-Honorific] \Bigg]^{9)} \text{이다(A type).}$$

2.1.5. /-더라/

- ㉘ 놀암더라, 먹엄더라. (놀고 있더라, 먹고 있더라.)

7) 현명호, 김홍식, 강근보; *Ibid* p.23

8) 이는 구문론적 입장에서 하나의 구문적 단위(formative)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cf 서정수; 「국어의 기본 부문과 명사구절의 생성문법적 분석」 어학연구 IV-2 서울대 어학연구소(1968. 12) p. 29

- ㉞ 놀더라, 먹더라. (놀고 있더라, 먹고 있더라.)
- ㉟ 갖더라, 하였더라. (가 버렸더라, 하였더라.)

/-더라/는 未完了相 形態素 /-았-~/-었-/과 過去時制 形態素 /-았-~/-었-/과도 連結이 가능하다. 또한, 語幹에 직접 연결되어, 先語末語尾와의 連結에 制約을 비교적 덜 받는 편이다. 形態素 /-더-/가 意味論的으로 N_1 이 N_3 의 動作을 「回想(Retrospect)」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Retrospect/더/]/라/[-Honorific]$ 이다. (A type)

2.1.6. /-데/

- ㉠ 가이 기영할 일 하데. (그 아이는 그런 일을 하더라.)
- ㉡ 가이 지브 가데. (그 아이 집에 가더라.)
- ㉢ 가이 밥 먹었데. (그 아이 밥 먹었더라.)

/-데/의 形態分析은 ‘더+이>데’의 變化로 보며, N_1 이 N_2 나 N_3 의 過去行動을 「회상」하여 言述하는 것으로, 語幹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와 過去時制 形態素 /-었-~/-었-/과 연결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left[\begin{matrix} Retrospect \\ sf_T[었/었] \end{matrix}\right]/데/[-Honorific]$ 이다. (A type)

2.1.7. /-히데다/

- ㉣ 가이 지브 갑데다. (그 아이는 집에 갔읍니다.)
- ㉤ 가이가 먹읍데다. (그 아이가 먹었읍니다.)

發話㉣㉤는 B type의 표현 형식을 가진 言述로 N_1 이 N_3 의 動作을 「회상」하여 N_2 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다. 先語末語尾 末音이 모음으로 끝나면

9) sf_T 는 Tense-Aspect suffix의 약어임

語幹에 직접 연결되지만, 자음으로 끝나면 매개모음 「으」를 삽입한다. /-니데다/가 *B type*이 되게 된 것은 /-니-/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相對尊待形態素로 다룬다. /-데-/는 2.1.6에서 설명한 「회상」의 意味機能을 가진 形態이다.

그러나, ‘집입데다’ ‘사름입데다’ ‘산입데다’에서처럼, 바로 명사에 연결되는 /-니데다/는 서술형어미 /-이/에 결합하여 나타나면서, N_1 이 N_1 자신의 「경험」에 의한 판단을 N_2 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本考에서는 [+Action]자질을 가진 것만을 다루므로, 서술형어미와 결합되어 [-Action]자질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그 連結條件을 제시하면,

$Vst[+Action]Afx\left[[sf_n/ㅁ/]^{10} [Retrospect/ㅁ/] /다/ [+Honorific] \right]$ 이다.
(*B type*)

2.1.8. /-(으)르로고/

- ㉓ 지브 갈로고\ (집에 갈 것이다)
- ㉔ 비 올로고\ (비가 올 것 같다)
- ㉕ 가이 일 잘 홀로고\ (그 아이는 일을 잘 할 것이다)

/-로고/는 冠形詞形語尾 /-고-/에만 連結된다. 冠形詞形語尾 /-고/은 N_1 의 「의도(Intention)」를 N_2 에게 표현하거나, N_1 이 오랜 경험에 의하여 얻어진 자연 현상에 대한 「추정」 또는, N_1 이 N_3 에 대한 판단을 N_2 에게 표현하는 意味機能을 가진다. 發話㉓~㉕에서 보인 것과 같이, /-(으)르로고/는 반드시 平叙法에서는 下降語調(falling Intonation)를 써야 한다. 가령, 上昇語調(rising Intonation)를 취하면 疑問文으로 전환되면서 /-(으)르로고/는 疑問法語尾가 된다. 平叙法語尾 /-(으)르로고/의 連語條件은

$Vst[+Action]Afx\left[[NMsf\left\{ \begin{array}{l} \text{Intention} \\ \text{Presumption} \end{array} \right\} /르/] /로고/ [-Honorific] \right]$

이다. (*A type*)

10) sf_n 는 *Honorific suffix*의 약어임.

2. 1. 9. /-거여/

- ㉠ 갈 거여, 먹올거여
- ㉡ 비 올거여, 낚름 불거여
- ㉢ 가이 공부 잘 훔거여.

發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거여/는 冠形詞形語尾 /-고-/ 아래 만 연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여/는 불완전명사 /-거-/와 平叙法語尾 /-여/로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 冠形詞形語尾는 「의도」, 「추정」의 意味論的 機能을 지닌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left[\begin{matrix} \text{Intention} \\ \text{Presumption} \end{matrix} \right] / \text{르} / [\text{Nom} / \text{거} /] / \text{여} / [-\text{Honorific}]$
이다. (A type)

2. 1. 10. /-저/

- ㉠ 감저, 오랍저, 놀암저, 먹엄저
- ㉡ 햏엿저, 죽엇저, 갓저
- ㉢ 공부 잘 햏엄저

/-저/는 /-암-~-엄-/과 制約을 받음없이 연결되면서 「진행(Progress)」의 意味機能을 지니고, /(-앗-~-엇-)/와 연결되면서 「완료(Completion)」의 意味機能을 나타낸다. /-저/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left[\begin{matrix} \text{Progress} \\ \text{Completion} \end{matrix} \right] / \text{암} / \text{저} / [-\text{Honorific}]$
이다. (A type)

2. 1. 11. /-수다~-우다/

- ㉠ 감수다, 놀암수다, 먹엄수다.

10) sf_T는 Tense suffix의 약어임.

- ㉞ 널 오랴수다, 널 감수다.
- ㉟ 공부 하였수다, 먹었수다.
- ㊱ 비 오겠수다, 벼름 볼겠수다.
- ㊲ 이거 먹을 거우다, (이거 먹을 것입니다.)

/-수다/는 /-암-~-엄-/에 연결되어 「진행」의 意味機能을 지니고, /-엇-/과의 연결로 「완료」의 意味를 가진다. 또한, /-겠-/과 연결되어 「추정」의 意味를 지니기도 한다. 이들의 音韻論的 連結條件은 先語末語尾의 末音이 자음이면 /-수다/가, 모음이면 /-우다/가 연결된다. /-수다~-우다/의 /-우-/는 對者尊待形態素로 나뉜다. 그러므로, /-수다~-우다/는 B type의 表現 形式에만 연결이 가능하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 \left[\left[\begin{array}{l} \text{Progress} \\ \text{Completion} \\ \text{Presumption}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text{암}/ \\ /\text{엇}/ \\ /\text{겠}/ \end{array} \right\} /\text{수다}/[+Honorific] \right]$$

이다. (B type)

2.1.12. /-브러저/

- ㉚ 지브 짓주 무사 와수과? (집에 계시지 왜 오셨습니까?)
 십십 한난 와브러저. (지루해서 와 버렸다)
- ㉛ 가이 오늘 가브러저. (그 아이는 오늘 가버렸다)
- ㉜ 가이 어느 제 감수과? (그 아이 언제 떠났습니까?)
 널 가브러저. (내일 가 버릴 것이다)

/-브러저/는 ㉚㉛에서 보면 時間副詞 「오늘」, 「어제」에 제한 없이 共起하면서 N_1 이나, N_3 의 動作이 「完了」됨을 보이고 있고, ㉜의 경우 /-늘/에 연결될 때는 /-브름-/으로 形態가 바뀐다. /-브러저/의 形態分析은 2.1.4에서 설명한 것처럼, /-브러-/은 표준어의 「버리+었>버렸」에 걸 맞는 것으로 /-브러-/은 完了相의 形態로 다룬다. /-브러네/(2.1.4)와 /-브러저/의 차이는 /-브러네/가 表現 形式이 $N_1=N_{2,3}$ 인 경우에 實現

되는 것이고, /-브릿저/는 $N_1 > N_{2.1}$ 인 경우에 實現되는 語感의 差異가 있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 \left[\left[\begin{array}{l} \text{Completion/브릿/} \\ \text{Progress /브림/} \end{array} \right] / \text{저} / [-Honorific] \right]$$

이다. (A type)

2. 1. 13. /-불매/

- ㉠ 가이 가불매. (그 아이는 가 버린다)
- ㉡ 혼저 먹으라 가이가 먹어불매. (빨리 먹어라 그 애가 먹어 버린다)

發話㉠㉡에서 볼 수 있는 /-불매/는 흔하게 사용하는 形態는 아니나, N_1 이 N_3 의 動作을 「예기」하는 意味機能을 /-불-/이 가진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 \left[\left[\text{Expectation/불/} \right] / \text{매} / [-Honorific] \right] \text{이다. (A type)}$$

2. 1. 14. /-키여/

- ㉠ 가키여, 먹키여, 놀키여. (가겠다, 먹겠다, 놀겠다.)
- ㉡ 나 저 낭에 오르키여. (나는 저 나무에 오를 수 있다.)
- ㉢ 널 비 오키여. (네일 비 오겠다.)
- ㉣ 저 볼 잘 드르키여. (저 말은 잘 뛰겠다.)

/-키여/는 「의도」, 「가능」, 「추정」의 意味機能을 가진 /-코-/과 叙述形語尾 /-이-/와 肯定的 단정을 표현하는 平叙法語尾 /-여/로 分析¹²⁾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 \left[\left[\begin{array}{l} \text{Intention} \\ \text{Presumption} \\ \text{Desire} \end{array} \right] / \text{코/} / \text{이여} / [-Honorific] \right] \text{이다. (A type)}$$

12) 현평효; *Ibid* p.96 참고

2. 1. 15. /-크라/

- ㉠ 가크라. \, 먹크라. \ (가졌다, 먹겠다)
- ㉡ 비 오크라. \, 바람 불크라. \ (비 오겠다, 바람 불겠다)
- ㉢ 그 사람 곧 돌아 오크라. \ (그 사람 곧 돌아 오겠다)

發話㉠~㉢에 연결된 /-크라/는 N_1 이 「의도」나, N_1 의 「추정」의 意味機能을 가진다고 보고, 이와 같은 意味機能을 가진 形態素를 /-ㄱ- /으로 생각한다. /-으- /를 매개모음으로, /-라/만을 平叙法語尾로 分析한다. 그런데, /-크라/는 반드시 下降語調(falling Intonation)가 돼야 한다. /-크라/에 上昇語調(rising Intonation)를 투입(In put)하면 意味가 통하지 않든지, 疑問文이 되며, /-크라/는 疑問法語尾가 된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 \left[\left[\begin{array}{c} \text{Intention} \\ \text{Presumption} \end{array} \right] / \text{ㄱ} / \right] / \text{라} / [- \text{Honorific}]$$

이다. (A type)

2. 1. 16. /-쿠다/

- ㉠ 가쿠다. 놀쿠다. (가졌습니다. 놀졌습니다.)
- ㉡ 날 비 오쿠다. (내일 비 오겠습니다.)
- ㉢ 그 말 잘 드르쿠다. (그 말 잘 꿰졌습니다.)

/-쿠다/는 N_1 의 「의도」, 「추정」, 「예기」의 意味를 가지는 /-ㄱ- /과 對者尊待 形態素 /-우- /와 平叙法語尾 /-다/로 分析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쿠다/의 表現 형식은 B type의 경우이며, 連結條件은,

$$Vst[+Action]Afx \left[\left[\begin{array}{c} \text{Intention} \\ \text{Presumption} \\ \text{Expectation} \end{array} \right] / \text{ㄱ} / [\text{sf}_u / \text{우} /] / \text{다} / \right] \text{이다.}$$

2. 1. 17. /-주/

- ㉔ 오늘 가주. (오늘 가겠다.)
- ㉕ 오늘 갑주. 내일 왕주. (오늘 갈 것이다. 내일 올 것이다.)

發話㉔는 “언제 갈 것이냐?”에 대한 대답으로 時間副詞의 意味에 관계 없이 N_1 이 「의도」를 표현해 주고 있다. 發話㉕는 「未完了相」과 結合되어 연결되기도 한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 \left[[sf_A \left\{ \begin{array}{l} \text{Intention} \\ \text{Expectation/압/} \end{array} \right\}] / \text{주} / [- \text{Honorific}] \right]$$

이다. (A type)

2. 1. 18. /-십주/

- ㉖ 갑십주. 놀암십주. (가고 있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 ㉗ 학생입주. 차입주. (학생입니다. 차입니다.)

發話㉖는 B type에 의한 표현이면서 /-암-~-엄-/에 /-십주/가 연결된 경우인데, /-십-/은 겸양형태소로, /-주/는 平叙法語尾로 分析이 가능할 것이고, ㉗는 서술형어미 /-이-/에 /-십주/가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㉗의 경우는 [-Action]을 가지기 때문에 說明에서 제외시킨다. /-십주/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 \left[[sf_A \text{ Progress } /\text{압/}] sf_H [/\text{십/}]/\text{주/} \right] \text{이다.}$$

2. 1. 19. /-주기/

- ㉘ 지브 갖주기. 먹었주기. (집에 갔다. 먹었다.)
- ㉙ 학생이주기. (학생이다.)

發話㉘의 /-주기/는 N_1 이 N_3 의 動作完了를 N_2 에게 알리는 표현이며,

/-주/를 平叙法語尾로 /-기/를 強調의 意味를 가진 形態素로 分析한다.

發話①는 평범한 叙述이 아니라, 같은 질문이 여러 차례 계속될 때 N_1 이 신경질적인 對答을 할 경우 쓰이는 표현이며, ①의 /-이-/는 서술형 어미로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2.1.7에서 하였으므로 되풀이를 피한다. 따라서 發話②의 /-주기/만의 連結條件을 제시하면,

$Vst[+Action]Afx[[sf_A \text{ Completion/았/}] /주기/ [-Honorific]]$

이다. (A type)

2.1.20. /-마/

① 먹으마. (먹겠다.)

가마. (가겠다.)

위의 發話는 $N_1 > N_{2.1}$ (A type), $N_1 = N_{2.3}$ (C type)인 경우에 /-마/의 출현을 보여 주는 예이다. /-마/는 N_1 의 강한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方言에는 ‘가주마’ ‘먹주마’(가겠다, 먹겠다)란 표현이 있다. 이 때의 /-주마/는 平叙法語尾 /-주/에 強調의 意味機能을 가진 /-마/의 결합으로 생각한다. /-마/의 연결조건은,

$Vstt[+Action]Afx[[Intention/ㅁ/] /마/ [-Honorific]]$ 이다. (A type)

지금까지 살펴 본 平叙法의 終結語尾들이 어떻게 先語末語尾의 意味機能과 連結되는 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표현 형식 : A type ($N_1 > N_{2.1}, N_1 = N_{2.3}$)

① 「추정(Presumption)」과의 連結

$$Vst[+Action]Afx \left[\left[\text{Presumption} \begin{cases} /ㄴ/ \\ /NMsf \text{ ㄹ}/ [Nom/생/] \\ /불/ \\ /ㅋ/ \end{cases} \right] \rightarrow \left[\begin{cases} /마/ \\ /이여/ \\ /매/ \\ /이여 \end{cases} \right] \right]$$

② 「진행(Progress)」과의連結

$$Vst[+Action]Afx \left[\left[\text{Progress} \begin{cases} /ㄴ/ \\ /\emptyset/ \\ /압/ \end{cases} \right] \longrightarrow \left[\begin{cases} /다/ \\ /저/ \\ /지/ \end{cases} \right] \right]$$

③ 「경험(Experience)」과의連結

$$Vst[+Action]Afx \left[\left[\text{Experience} \begin{cases} /ㄴ/ \\ /ㅋ/ \\ /NMsf \text{ ㄴ, ㄹ} / [Nom/생/] \end{cases} \right] \longrightarrow \left[\begin{cases} /다/ \\ /이여/ \\ /이여/ \end{cases} \right] \right]$$

④ 「회상(Retrospect)」과의連結

$$Vst[+Action]Afx \left[\left[\text{Retrospect} /더/ \right] \longrightarrow \left[\begin{cases} /라/ \\ /이/ \end{cases} \right] \right]$$

⑤ 「의도(Intention)」와의連結

$$Vst[+Action]Afx \left[\left[\text{Intention} \begin{cases} /\emptyset/ \\ /NMsf \text{ ㄹ} / [Nom/거/] \\ /ㅋ/ \end{cases} \right] \longrightarrow \left[\begin{cases} /네, 주/ \\ /로고/ \\ /이여/ \end{cases} \right] \right]$$

⑥ 「예기(Expection)」와의連結

$$Vst[+Action]Afx \left[\left[\text{Experience} \begin{cases} /ㄴ/ \\ /NMsf \text{ ㄴ, ㄹ} / [Nom/생, 거/] \\ /불/ \\ /ㅋ/ \\ /\emptyset/ \end{cases} \right] \longrightarrow \left[\begin{cases} /다/ \\ /로고, 이여/ \\ /./ \\ /이여/ \\ /주/ \end{cases} \right] \right]$$

2) 표현 형식 : $B \text{ type}(N_1 < N_{2,2})$

① 「추정(Presumption)」과의連結

$$Vst[+Action]Afx \left[[sf_H /우, 수/] [Presumption /\emptyset/]/다/ \right]$$

② 「진행(Progress)」과의連結

$$Vst[+Action]Afx \left[\begin{matrix} /우/ \\ [sf_H \left\{ \begin{matrix} /타/ \\ /십/ \end{matrix} \right\}] \end{matrix} \right] [Progress /\emptyset/] \longrightarrow \left[\begin{matrix} /다/ \\ /다/ \\ /주/ \end{matrix} \right]$$

③ 「회상(Retrospect)」과의連結

$$Vst[+Action]Afx \left[\begin{matrix} /우/ \\ [sf_H /타/] \end{matrix} \right] [Retrospect \left\{ \begin{matrix} /더/ \\ /때/ \end{matrix} \right\}] \longrightarrow \left[\begin{matrix} /다/ \\ /이와/ \end{matrix} \right]$$

④ 「의도(Intention)」

$$Vst[+Action]Afx \left[\begin{matrix} /우(우)/ \\ [sf_H /수(우)/ \end{matrix} \right] [Intention \left\{ \begin{matrix} /\emptyset/ \\ /ㄹ/ \end{matrix} \right\}] \longrightarrow \left[\begin{matrix} /다/ \\ /다/ \end{matrix} \right]$$

⑤ 「예기(Expectation)」

$$Vst[+Action]Afx \left[\begin{matrix} /수(우)/ \\ [sf_H \left\{ \begin{matrix} /십/ \end{matrix} \right\}] \end{matrix} \right] [Expectation /\emptyset/] \longrightarrow \left[\begin{matrix} /다/ \\ /주/ \end{matrix} \right]$$

2. 2. 疑問法語尾

方言의 疑問文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區分하여 보면,

- ① 철수가 사과를 먹었느냐?
- ② 철수가 무엇을 먹었느냐?
- ③ 누가 사과를 먹었느냐?

①의 경우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Q-疑問文이라 하고, ②와 ③의 경우처럼 'Yes or No'로 대답할 수 없는 疑問文을 Wh-疑問文이라 한다". 나머지 하나는 平叙法語尾와 동일한 形態를 가지면서 Intonation에 의한 對立을 보이는 疑問文, 곧 /-크라/로 終結되는 文 '가크라'에 下降語調(falling Intonation)를 쓰면 平叙法이 되고, 上昇語調(rising Intonation)

1) Jacobs/Rosenbaum: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Japan(1968) pp. 150~159 of the two main types of question sentences, only the yes-No. questions have been discussed these are the question sentences which might normally elicit a "yes or No" answer: the other kind of question sentence is the Wh-question these are never answered by "Yes or No" the answer to a Wh-question is normally a noun phrase

를 쓰면 疑問法이 된다.

以上과 같이, 方言의 疑問法을 세 가지로 區分하고, 이들을 다시 N_1 과 N_2 와 N_3 의 관계에 따라 어떤 疑問法語尾가 쓰이며, 先語末語尾의 意味論的 機能과 어떻게 連結되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2.2.1. /-냐/

- (1) ㉠ 누가 먹을 거냐? (네가 먹을 것이냐?)
㉡ 누가 갈 거냐? (네가 갈 것이냐?)

(1)의 /-거냐-/는 관형사형어미 /-고-/에만 연결된다. 따라서 /-거냐/의 /-거-/는 불완전명사로, /-냐/는 疑問法語尾로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冠形詞形語尾 /-고-/은 N_2 의 「의도」를 묻는 意味機能을 가진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Intention/ㄹ/][Nom/거/]Q/냐/[-Honorific]]$ 이다.

- (2) ㉢ 먹으미냐? 감이냐? (먹고 있느냐? 가고 있느냐?)
㉣ 먹엄지냐? 감지냐? (먹고 있느냐? 가고 있느냐?)

㉢의 /-미냐/는 動作의 「진행」을 나타내는 /-고-/과, /-이-/ 叙述形語尾와 疑問法語尾 /-냐/로 分析될 것이다.

㉣의 /-시냐/는 中世語 /-이시/에서 由來된 /-시/와 疑問法語尾 /-냐/로 分析될 것이며, 未完了存續相 /-암-~-엄-/과 결합된다. 이들의 連結조건은,

$Vst[+Action]Afx[[Progress\left\{\begin{matrix} /미/ \\ /암/ \end{matrix}\right\}]Q/냐/[-Honorific]]$ 이다.

- (3) 놀 구경하냐? 가구경하냐? (놀고 싶느냐? 가고 싶느냐?)

發話(3)의 /-구경-/은 표준어의 의도형어미 /-고자/에 대응하는 것으

로서, N_1 이 N_2 의 「願望(Desire)」을 묻는 것으로 /-구정/이 「願望」의 意味機能을 가지는 形態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left[[Desire/구정/][Aux/ㅎ]Q/냐/[-Honorific]\right]$ 이다.

- (4) 놀겠^ㅎ염냐? (놀려고 하느냐?)
가겠^ㅎ염냐? (가려고 하느냐?)

(4)의 /-겠^ㅎ염냐/는 어간에 직접 연결되면서 표준어의 의도형어미 /-고자/와 같은 意味를 가진다. /-겠-/은 N_2 의 「의도」를 나타내는 形態素이고, /ㅎ/는 보조동사의 어간, /-염-/ 未完了存續相으로, /-냐/는 疑問法語尾로 形態分析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left[[Intention/겠/][Aux[Vst/ㅎ/][sf_A/염/]]\right]$
 $Q/냐/[-Honorific]$ 이다.

- (5) 놀아냐? (놀고 있었느냐?)
밥 먹어냐? (밥 먹고 있었느냐?)

(5)의 /-냐/는 副詞形語尾 /아(어)/와 결합되면서 N_1 이 N_2 에게 N_3 의 動作의 지속 상태를 묻는 意味機能을 가진다. 이 때는 반드시 上昇語調(rising Intonation)를 써야 한다. 만약, 下降語調(falling Intonation)를 쓰면 平叙法이 되고 만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left[[Adv[아/어]][Progress/ㅇ/]]Q/냐/[-Honorific]\right]$ 이다

- (6) 날 비 오크냐? (내일 비 오겠느냐?)

發話(6)은 N_1 이 마음속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N_2 에게 묻는 내용이다. 또한, 發話의 상황이 N_1 이나 N_2 가 공감각적인 상황의 설정을 전제로 하는 疑問法이다. /-크냐/의 /-크-/은 平叙法語尾 설명

2.1.6에서 「추정」의 形態素로 설정하였다. /-으-/는 매개모음, /-냐/는 疑問法語尾로 分析한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Presumption/\text{ㄷ}/]Q/냐/[-Honorific]]$ 이다.

2.2.2. /-가/

- (1) ㉔ 지브 가신가? (집에 갔는가?)
 먹어신가? (먹었는가?)
 ㉕ 가브리신가? (가버렸는가?)

發話㉔의 /-신가/는 中世語의 /시/(이시>시)와 같은 形態素 /-시-/, 「추정」의 意味機能을 가진 /-ㄴ-/, 疑問法語尾 /-가/로 分析할 수 있다

㉕는 N_1 이 N_2 에게 N_3 의 動作의 完了를 추정하여 묻는 내용이다, /-브리신가/의 形態分析은 ‘브리+어+시(이시>시)+ㄴ가’로 될 것이고 /-ㄴ가/는 過去時制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ㄴ가/를 다시 分析하면 「추정」의 意味機能을 가진 /-ㄴ-/과 疑問法語尾 /-가/로 分析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Aux\left\{\begin{matrix} 시 \\ 브리 \end{matrix}\right\}][Presumption/\text{ㄴ}/]Q/가/[-Honorific]]$
 이다.

- (2) 영순 지브 감신가? (영수는 집으로 가고 있는가?)

‘감신가’의 形態分析은 未完了存續相 /-암-~-엄-/, /-시-/, 「추정」의 意味機能을 가진 /-ㄴ-/, 疑問法語尾 /-가/로 分析할 수 있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sf\text{+}/\text{암}/][Aux/시/][Presumption/\text{ㄴ}/]Q/가/[-Honorific]]$ 이다.

- (3) **ㅎ고정** **ㅎ염신**가? (하고 싶어 하는가?)
놀구정 **ㅎ염신**가? (놀고 싶어 하는가?)

發話(3)은 N_1 이 N_2 에게 N_3 의 희망을 묻거나, N_1 스스로 독백하는 疑問法이고. /-고정~-구정/을 「願望」의 意味機能을 가진 形態로 다루고, /-고정~-구정/과 /-신가/의 連結條件을 제시하면,

$$Vst[+Action]Afx\left[[Desire/고정/]\left[[Aux[Vst/ㅎ/, sf_T/염시/, Presumption/ㄴ/]]Q/가/[-Honorific]\right]\right]이다.$$

- (4) **놀젠** **ㅎ염가**? (놀려고 하느냐?)
가젠 **ㅎ염가**? (가려고 하느냐?)

發話(4)의 /-젠/을 「의도」의 意味를 가진 形態로, ‘ㅎ염가’의 /-가/를 疑問法語尾로 分析한다. 결국, N_1 이 N_2 의 「의도」를 묻는 疑問法이다. /-젠/과 /-가/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left[[Intention/젠/]\left[[Aux[Vst/ㅎ/, sf_T/염/]]Q/가/[-Honorific]\right]\right]이다.$$

- (5) ㉠ **비 오킨**가? (비 오겠느냐?)
 ㉡ **월 오킨**가? (내일 오겠느냐?)

/-킨가/의 形態分析은 「추정」의 意味를 가진 /-ㄱ-/과 서술형어미 /-이-/.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ㄴ-/, 疑問法語尾 /-가/로 될 것이다.

㉡는 N_2 의 「의도」를 N_1 이 묻는 疑問法이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left[\left[\begin{matrix} Presumption \\ Intention \end{matrix}\right]/키/]\left[Q/가/[-Honorific]\right]\right]이다.$$

2.2.3. /-니~디/

- (1) 무시거 형염시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 갔디? (어디로 가느냐?)

發話(1)의 /-염시니/는 未完了相의 意味를 가진 /-염시-/ , /-니/ 疑問法語尾로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니/, /-디/에 있어서, /-니/는 先語末語尾 末音が 모음인 경우에, 자음인 경우엔 /-디/가 連結되는 音韻論的 制約이 있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Wh \left[\begin{array}{l} \text{무시거} \\ \text{어디} \end{array} \right] Vst [+Action] Afx \left[\begin{array}{l} [sfr \left\{ \begin{array}{l} /염시/ \\ /압/ \end{array} \right\} [Progress /\emptyset/] \\ Q \left[\begin{array}{l} /니/ \\ /디/ \end{array} \right] -Honorific \end{array} \right] \text{이다.}$$

2.2.4. /-ㄴ/

- (1) ㉠ 어느 제 오란? (언제 왔느냐?)
㉡ 어디 살안? (어디 살았느냐?)
㉢ 무시거 먹언? (무엇을 먹었느냐?)

發話(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動詞 語幹이 모음이면 /-란/이, 자음이면 /-안~언/이 連結된다. /-란/은 /-라- /와 /-ㄴ-/으로, /-안~언/은 /-아-~어- /와 /-ㄴ-/으로 分析할 수 있다. 이렇게 分析된 /-라- /와 /-아-~어- /의 意味機能을 「회상」으로 보고, /-ㄴ-/을 疑問法語尾로 다룬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Wh \left[\begin{array}{l} \text{어디} \\ \text{어느 제} \\ \text{무시거} \end{array} \right] Vst [+Action] Afx \left[\begin{array}{l} [Retrospect \left\{ \begin{array}{l} /라/ \\ /아/ \end{array} \right\}] Q / \text{ㄴ} / [-Honorific] \end{array} \right]$$

이다.

2.2.5. /-(으)르로고/

- (1) ㉠ 이거 먹을로고? /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냐?)
 ㉡ 기영 홀로고? /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의 /-(으)르로고/의 分析은 매개모음 /-으-/, 관형사형어미 /-르-/, 疑問法語尾 /-로고/로 될 것이다.

/-로고/는 관형사형어미 /-르-/에 의하여 「추정」의 意味를 표현한다. 다음은 Intonation의 문제를 살펴 보면, /-로고/는 반드시 上昇語調 (rising Intonation)를 가져야 한다. 만약, ㉠㉡가 下降語調(falling Intonation)로 發話하면,

- a' 이거 먹을로고\ (나는 이것을 먹겠다.)
 b' 기영 홀로고\ (그렇게 하겠다.)

로 돼서, 전혀 다른 표현으로 변한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NMsf/르/Presumption]Q/로고/[-Honorific]]$ 이다.

2.2.6. /-다/

- (1) ㉠ 지비 갈다? (집에 갈 것이냐?)
 ㉡ 무시거 먹을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
 ㉢ 느 널 올다? (너는 내일 올 것이냐?)

發話(1)의 /-(으)르다/를 分析하면, 未來冠形詞形語尾 /-(으)르-/, 疑問法語尾 /-다/로 分析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中世國語의 未來 疑問法語尾와 一致한다. (cf. 네 能히 내게 풀다. (圓覺下三之一. 88))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NMsf/르/Intention]Q/다/[-Honorific]]$ 이다.

2. 2. 7. /-수과~우과/

- (1) ㉠ 어디 갑수과? (어디로 가십니까?)
 ㉡ 어디 감이우과? (어디로 가십니까?)

發話(1)은 N_1 이 N_2 의 動作의 「진행」을 묻는 표현이다. 音韻論的 連結條件은 先行末音이 자음이면 /-수과/가, 모음이면 /-우과/가 連結된다. 形態素 /-수-~-우-/에 대한 설명은 2. 1. 11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반복을 피한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Wh) Vst[+Action]Afx[$[sf_n/\text{암}/\text{Progress}][sf_n\{\text{수}/\text{우}\}]Q/\text{과}/[+\text{Honorific}]$]
 이다.

- (2) 무시거 먹구정 호우과?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發話(2)는 N_1 이 N_2 의 「願望」을 묻는 표현이다. /-구정/은 2. 2. 2에서 설명하였으므로 반복을 피한다. /-구정/과 疑問法語, /-과/의 連結條件은,

(Wh) Vst[+Action]Afx[$[\text{Desire}/\text{구정}/][\text{Aux}[Vst/\text{호}/.sf_n/\text{우}/]]$
 $Q/\text{과}/[+\text{Honorific}]$]이다.

2. 2. 8. /-네니까/

- (1) ㉠ 나도 같이 갑네까? (나도 같이 갑니까?)
 ㉡ 애긴 아무거나 잘 먹읍네까? (애기는 아무거나도 잘 먹읍니까?)

㉠은 N_1 이 자신의 動作 계속 여부를 N_2 에게 묻는 言述이고, ㉡는 N_1 이 N_3 의 動作의 「추정」을 묻는 표현이다. /-네-/은 假設 形態素이고 /-네-/는 「진행」 形態素이며 /-까-/는 疑問法語尾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sf_n/\text{네}/][\begin{cases} \text{Progress} \\ \text{Presumption} \end{cases}/\text{네}/]Q/\text{까}/[+\text{Honorific}]$]

이다.

2.2.9. /-ㅂ데(ㄷ)가/

(1) ㉠ 가이 집데레 갑테가? (그 애는 집으로 갔습니까?)

㉡ 가이 놀암십디가? (그 애는 놀고 있었습니까?)

㉡의 경우 /-암시-/와 결합되어 행동의 지속의 意味를 가지며, /-데-/ , /-디-/가 「회상」의 意味機能을 가진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 \left[[sf_{H/ㅂ/}] [Retrospect \left\{ \begin{array}{l} /데/ \\ /디/ \end{array} \right\}] Q/가/[+Honorific] \right] \text{이다.}$$

2.2.10. /-마씀/

(1) ㉠ 감서마씀? (가고 있습니까?)

㉡ 가서마씀? (갔습니까?)

㉢ 와브러서마씀? (돌아 와버렸습니까?)

發話(1)의 /-마씀/은 「진행」, 「과거」, 「완료」의 形態素 /-암시-/ , /-아서-/ , /-브러서-/에 두루 連結이 가능하면서, N_3 의 動作 進行, N_3 의 動作 完了, 過去完了를 묻는 표현이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 \left[[sf_{A,} \left\{ \begin{array}{l} /암시, 업서/ \\ /아서, 어서/ \\ /브러서/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Progress} \\ \text{Past} \\ \text{Completion} \end{array} \right\} \right] Q/마씀/[+Honorific] \right] \text{이다.}$$

지금까지 方言의 疑問法 終結語尾를 설명하였다. 이들을 표현 형식과 Wh-의문문, Q-의문문의 요소에 따른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표현 형식 : A type($N_1 > N_{2.1}$, $N_1 = N_{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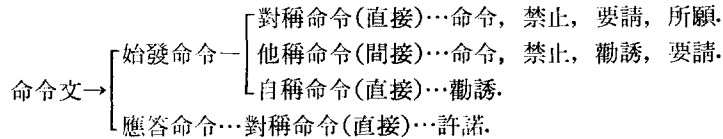
- ① /-냐/형. (Q-의문)
- ② /-가/형. (Q-의문)
- ③ /-고/형. (Q-의문)
- ④ /-니~~디/형. (Q-의문과 Wh-의문의 복합)
- ⑤ /-ㄴ/형. (Q-의문과 Wh-의문의 복합)
- ⑥ /-다/형. (Q-의문은 필수, Wh-의문은 선택적이다)

2) 표현 형식 : *B type*($N_1 < N_{2,2}$)

- ① /-수과~~우과/형. (Q-의문과 Wh-의문의 복합)
- ② /-가/형. (Q-의문)
- ③ /-마춤/형. (Q-의문)

2.3. 命令法語尾

命令文에는 直接命令文과 間接命令文이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¹⁾.



그러나, 本考에서는 「對稱命令」의 命令法語尾와 上昇語調(rising Intonation)나 下降語調(falling Intonation)에 의하여 생기는 命令法만을 다루고, Np 자체가 命令法이 되는 ‘좌향 좌’ ‘우향 우’ ‘돌격’과 같은 것은 다루지 않는다.

2.3.1. /-라/

- (1) ㉠ 공부 하라.
- ㉡ 지배 가라.

1) 金敏洙; 國語文法論, 일조각(1975) pp.296~297.

發話(1)은 N_1 이 N_2 에게 직접 어떤 動作을 명령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 때 命令法語尾 /-라/는 動詞 語幹에 직접 연결된다.

이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Imperative/라/]$ 이다.

2. 3. 2. /-게/

- (1) ㉠ 이리 와게 /
㉡ 여기 있어게 /

發話(1)은 N_1 이 N_2 에게 어떤 動作을 요청하는 명령인데, 命令法語尾 /-게/는 副詞形語尾 ‘아/어+게’의 形態로 連結된다. 이 때는 반드시 上昇語調(rising Intonation)를 써야 한다. 下降語調(falling Intonation)를 쓰면 請誘文이 된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Adv/아, 어/[[Imperative/게/]]]$ 이다.

2. 3. 3. /-아~-어/

- (1) ㉠ 구 닦아\ (구두 닦아라.)
㉡ 밥 혼자 먹어\ (밥 빨리 먹어라.)

發話(1)은 N_1 이 N_2 에게 어떤 動作을 直接 命令하는 것으로 이의 連結은 動詞 語幹에 직접 연결된다. 命令法語尾 /-아~-어/는 2. 3. 2와는 달리 下降語調(falling Intonation)를 써야 한다. 만약, 上昇語調(rising Intonation)를 쓰면, 疑問法이 된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Imperative/아, 어/]]$ 이다.

2. 3. 4. /-십/

- (1) ㉠ 혼자 먹십\ (빨리 먹어라)

㉞ 가십\ (가다.)

發話(1)은 N_1 이 N_2 에게 어떤 動作을 요청하는 命令이다. (1)과같은 표현은 중년 부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 Intonation은 下降語調(falling Intonation)을 쓴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Imperative/십/]]이다.$$

2.3.5. /-ㅂ서/

(1) ㉞ 흔저 갑서 (빨리 가십시오.)

㉞ 흔저 먹읍서 (빨리 드십시오.)

發話(1)은 $N_1 < N_{2.2}$ 의 표현 형식에 의한 표현으로 이를 상대존대 命令法으로 다룬다. 따라서, /-ㅂ-/은 상대존대 形態素이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sf_H/ㅂ/][Imperative/서/]]이다.$$

지금까지 方言의 命令法 終結語尾를 설명하였다. 이들을 표현 형식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표현 형식 : A type ($N_1 > N_{2.1}$)

㉞ /-라/형

$$Vst[+Action]Afx \left[\text{Imperative} \left\{ \begin{array}{l} /라/ \\ /개/ \\ /아, 어/ \\ /십/ \end{array} \right\} \begin{array}{l} \searrow \\ \nearrow \\ \searrow \\ \rightarrow \end{array} \right]$$

2) 표현 형식 : B type ($N_1 < N_{2.2}$)

㉞ /-ㅂ서/형

$$Vst[+Action]Afx[[sf_H/ㅂ/][Imperative/서/]]이다.$$

2. 4. 請誘法語尾

方言의 請誘法語尾는 단순한 편이어서, 다른 語尾들에 비하여 그 수가 많지 못하다.

2. 4. 1. /-자/

- (1) 혼자 가자\ (빨리 가자.)
혼자 먹자\ (빨리 먹자.)

發話(1)은 N_1 이 N_2 에게 어떤 動作을 請誘하는 표현이면서, N_2 는 동년배이거나 손 아래사람인 경우에 쓰이는 形態이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Propositive/자/]$ 이다.

2. 4. 2. /-계/

- (1) 혼자 가게\ (같이 가자.)
밤 먹계\ (밤 먹자.)

發話(1)은 동년배이거나, 손 아래 사람에게 두루 쓰이나, $N_1 > N_{2.1}$ 인 경우에 많이 쓴다. 2. 4. 1의 /-자/보다는 /-계/가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形態素이다. 連結條件은,

$Vst[+Action]Afx[Propositive/계/]$ 이다.

2. 4. 3. /-ㅂ주/

- (1) 먹읍주. (드십시오.)
갑주. (가십시오.)

發話(1)은 $N_1 < N_2$ 의 條件에 의하여 표현되는 發話이다. 이 때의 N_2 는 반드시 연장자만은 아니고, N_2 가 [-familiar]의 자질을 가질 때도 가능한

표현이다. 이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left[[sf_H/ㅁ/] [Propositive/주/] \right]$ 이다.

以上の 方言 請誘法 終結語尾를 표현 형식에 의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표현 형식 : *A type* ($N_1 > N_{2,1}, N_1 = N_{2,3}$)

$Vst[+Action]Afx\left[[Propositive\left[\begin{array}{l} /자/ \\ /계/ \end{array} \right]] \right]$

2) 표현 형식 : *B type* ($N_1 < N_{2,2}$)

$Vst[+Action]Afx\left[[sf_H/ㅁ/] [Propositive/주/] \right]$

2.5. 感歎法語尾

方言의 感歎法語尾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쓰일 뿐이다.

2.5.1. /-구나계/

㉔ 드르에 봄이 왔구나계! (들에 봄이 오는구나!)

發話㉔에서 보는 바와 같이, 感歎法語尾 /-구나계/는 현재진행 형태소 /-았-/에단 連結이 가능하다. 표준어 /-구나/와 비교해 보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계/가 더 첨가된 형태를 취한다.

이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left[[sf_A/았/Progress] [Exclamative/구나계/] \right]$ 이다.

2.5.2. /-저계/

㉕ 가이 지브 왔저계! (그 애가 집에 왔구나!)

發話②는 平叙法語尾 /-지/에 강조의 意味를 지닌 /-게/가 첨가되어 完了相形態素 /-았-/에 連結된다. 이들의 連結條件은,

$Vst[+Action]Afx[sf_n/았/Completion][Exclamative/저게/]$ 이다.

Ⅲ 結 論

지금까지 설명한 濟州方言의 終結語尾—平叙法語尾, 疑問法語尾, 命令法語尾, 請誘法語尾, 感歎法語尾—와 그 連結條件을 要約 提示함으로써 結論을 삼고자 한다.

I) 方言의 平叙法語尾는 크게 두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는, 표현형식이 $A\ type(N_1 > N_{2,1}, N_1 = N_{2,3})$ 과 $B\ type(N_1 < N_{2,2})$ 인 것이다. 이들과 先語末語尾의 意味論的 機能과의 連結條件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표현 형식 : $A\ type(N_1 > N_{2,1}, N_1 = N_{2,3})$

$Vst[+Action]Afx$

$$\left[\begin{array}{l} \text{Intention}[/\text{ㄴ}, \text{ㄹ}/ \text{Nom}\{\text{거}\}][\text{ㄷ}][\emptyset] \\ \text{Presumption}[/\text{ㄴ}, \text{ㄹ}/ \text{Nom}\{\text{생}\}[\text{불}][\text{ㄷ}][\emptyset] \\ \text{Progress}[\text{ㄴ}, \text{압/엄}, \emptyset/] \\ \text{Retrospect}[\text{더}, \text{러}] \\ \text{Expection}[/\text{ㄴ}, \text{ㄹ}/ \text{Nom}\{\text{생}\}[\text{불}][\text{ㄷ}][\emptyset]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다}/ \\ /\text{여}/ \\ /\text{매}/ \\ /\text{라}/ \\ /\text{주}/ \\ /\text{르코}/ \end{array} \right\}$$

2) 표현 형식 : $B\ type(N_1 < N_{2,2})$

$$Vst[+Action]Afx \left[\begin{array}{l} [sf_n \left\{ \begin{array}{l} /수, 우/ \\ /ㅂ/ \\ /ㅅㅂ/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Presumption } /\emptyset/ \\ \text{Progress } /ㅅ/ \\ \text{Retrospect } /더/ \\ \text{Intention } /\emptyset/ \\ \text{Expection } /\emptyset/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다}/ \\ /\text{주}/ \\ /\text{이다}/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II) 方言의 疑問法語尾의 分類는 그 표현 형식과 Wh-의문문, Q-의문문

語尾를 區分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표현 형식 : $A \text{ type}(N_1 > N_{2,1} \ N_1 = N_{2,3})$

$$(1) \text{ } Vst[+Action]Afx \left[\left[\begin{array}{l} \text{Expectation[/_/, ㄹ/ Nom {겨}] } \\ \text{Progress[이]} \\ \text{Desire[구경]+Aux} \\ \text{Intention[젠]+Aux} \\ \text{Retrospect[아/어, 서]} \\ \text{Presumption[키]} \end{array} \right] \right] Q/나/$$

$$(2) \text{ } Vst[+Action]Afx \left[\left[\begin{array}{l} \text{Expectation[_]} \\ \text{Progress[압/엄]} \\ \text{Desire[구경/고경]+Aux} \\ \text{Intention[젠]+Aux} \\ \text{Presumption [키]} \end{array} \right] \right] Q/가/$$

$$(3) \text{ } Wh \left[\begin{array}{l} \text{무시거} \\ \text{어디} \\ \text{어느 제} \end{array} \right] Vst[+Action]Afx$$

$$\left[\left[\begin{array}{l} \text{Progress[_, 압/엄]} \\ \text{Retrospect} \left[\begin{array}{l} \text{안} \\ \text{란} \\ \emptyset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rightarrow Q / \left[\begin{array}{l} \text{/니/} \\ \text{/더/} \\ \text{/다/} \end{array} \right] \right]$$

2) 표현 형식 : $B \text{ type}(N_1 < N_{2,2})$

(1) $Vst[+Action]Afx$

$$\left[\left[\begin{array}{l} \text{Retrospect [태, 더]} \\ \text{Presumption [네]} \\ \text{Progress [네]} \end{array} \right] \right] Q/가/ \\ \left[\left[\begin{array}{l} \text{Desire [구경]} \\ \text{Intention [젠]} \end{array} \right] \right] + \text{Aux} / \text{ㅎ} / + \text{sf}_H [\text{수/우}] Q/가/$$

$$(2) \text{ } Vst[+Action]Afx \left[\left[\begin{array}{l} \text{Progress [가서]} \\ \text{Retrospect [서]} \\ \text{Compection [브러서]} \end{array} \right] \right] Q/마음/$$

III) 命令法語尾의 경우 本考에서는 對稱命令語尾와 上昇語調(rising Intonation)에 의하여 생기는 命令法語尾만을 다룬다.

1) 표현 형식 : $A \text{ type}(N_1 > N_{2.1}, N_1 = N_{2.3})$

$$Vst[+Action]Afx \left[\left[\text{Imperative} \begin{array}{l} /라/ \\ /계/ \\ /아, 어/ \\ /십/ \end{array} \begin{array}{l} \searrow \\ \nearrow \\ \searrow \\ \rightarrow \end{array} \right] \right]$$

2) 표현 형식 : $B \text{ type}(N_1 < N_{2.2})$

$$Vst[+Action]Afx \left[[sf_H/ㅁ/] [\text{Imperative}/서/] \right]$$

IV) 請誘法語尾는 다양하지 못하며, 이들 역시 Intonation에 의하여 다른 叙法과 對立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표현 형식 : $A \text{ type}(N_1 > N_{2.1}, N_1 = N_{2.3})$

$$Vst[+Action]Afx \left[\left[\text{Proositive} \begin{array}{l} 자 \\ 제 \end{array} \right] \searrow \right]$$

2) 표현 형식 : $B \text{ type}(N_1 < N_{2.2})$

$$Vst[+Action]Afx \left[[sf_H/ㅁ/] [\text{Proositive}]/주/\wedge \right]$$

V) 感歎法語尾는 표준어의 /-구나/에 /-게/라는 形態가 덧붙여 쓰이거나, 平叙法語尾 /-저/에 /-게/가 後接하여 써고 있어 극히 단순하다.

$$Vst[+Action]Afx \left[\left[sf_A \begin{array}{l} 암 \\ 앓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l} \text{Progress} \\ \text{Completion} \end{array} \right] \left[\text{Exclamative} \begin{array}{l} 구나제 \\ 저제 \end{array} \right] \right]$$

參 考 文 獻

- 康允浩 : 제주도 방언에 있어서의 공통어계 어휘의 음운양상, 한글 126(1960)
 _____ : 정수문법, 국정 교과서 주(1968)
 金敎洙 : 신국어학, 일조각(1972)
 _____ : 國語文法論, 일조각(1975)
 _____ : 문법, 어문자(1978)
 高永根 : 現代國語의 先語末語尾에 對한 構造的 研究, 語學研究 3-Vol. 1(1967.4)
 김석득 : 한국어 존재형의 확대구조, 연세대논문집 20(1968)
 _____ : 한국어의 형태 통사구조론, 연세대출판부(1971)
 金榮敦 : 제주도 방언의 어미활용, 한글 119~122(1956~57)
 金英培 : 未來時制의 한 考察—平安方言의 /~가시~/에 대하여, 東岳語文論集 8 (1972)
 金亨奎 : 韓國方言研究, 서울대출판부(1974)
 南廣祐 : 古語辭典, 일조각(1971)
 南基心 : 國語完形補文法研究, 啓明大學韓國學研究所(1973)
 남기심, 이정민, 이홍배 : 언어학개론, 탑출판사(1977)
 박병수 : *Complement Structure in Korean—A Sxntactic Stud of Verb ha—*백합출판사(1974)
 성낙수 : 濟州道方言의 統辭論의 研究, 국어국문학 68.69(1975)
 _____ : 釋譜祥節에 나타난 動詞類의 終結接尾辭研究, 언어와 문학(한국어문학연구회)(1975)
 서정수 : 국어의 기본부편과 명사구절의 생성문법적 분석, 어학연구 IV-2 서울대어학연구소(1968.12)
 李崇寧 : 제주도방언의 形態論의 研究, 국어학 논문선 6, 민중서관(1977)
 _____ : 中世國語文法, 을유문화사(1961)
 이홍배 : *A Study of Korean Syntax*, 범한서적 주(1970)
 李熙昇 : 國語學概論, 민중서관(1971)
 정연규 : 변형생성영문법, 한신문화사(1980)
 채준기, 박영수 : 영어언어학 —변형문법, 구조문법—형설출판사(1975)
 최현배 : 우리말본, 정음사(1937)
 박창해 : 한국어구조론 3, 연세대한국어학당(1967)
 현경효 : 濟州島 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 아세아문화사(1974)

- _____ : 濟州島 方言研究 제 1 집 (자료편), 정연사(1962)
- _____ : 濟州島 方言의 層位學的 考察, 藏菴池憲英先生 華甲紀念論叢(別刷)
(1971)
- _____ : 濟州島 方言의 尊待法, 국어국문학선 6, 민중서관(1977)
- _____ (외 2인) : 濟州島 方言의 活用語尾에 대한 研究, 제주대학논문집 6(1974)
- 허 응 : 國語音韻學, 경음사(1976)
- Roger Fowler : An introduction to Transformational Syntax* (London 1971)
- R. W. Langacker : Language and Structure* (New York 1968)
- N. Chanasky : Syntactic Structure* (Hague 1964)
- Jacobs/Rosebaum :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Japan 1969)
- F. de Saussure :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吳元教譯, 형실출판사(1975)

SUMMARY

A study of Final Ending in Cheju-do Dialect

—A The point of verb Final Ending—

Jung Young Jin

Dep.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Dong Guk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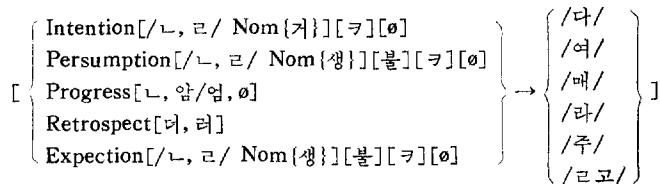
This study have been investigatied about the final endings of Che-ju dialect. The final endings is classified by predic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Propositive and Exclamative ending, in addition to, have been examined their connexion condition of each other.

I) Predicative endings of dialect can be made e analysis to a great extend by of two kinds. The first is A type [$N_1 > N_{2.1}$, $N_1 = N_{2.3}$] and the second is B type [$N_1 < N_{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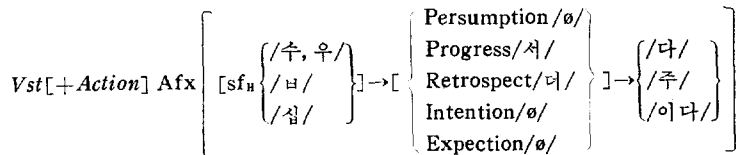
The combination of their semantic function and connexion are as follows;

(1) *Style form* : A type ($N_2 > N_{2.1}$, $N_1 = N_{2.3}$)

$Vst[+Action]Afx$



(2) *Style form* : B type ($N_1 < N_{2.2}$)



II) Interrogative endings of dialect may be had the style form, WH-Interrogative sentence and Q-ending.

(1) Style form : A type ($N_1 > N_{2.1}$, $N_1 = N_{2.3}$)

$$\begin{aligned}
 (1) \text{ Vst}[+Action] \text{ Afx} & \left[\left[\begin{array}{l} \text{Expectation}[\text{ㄴ, ㄹ} / \text{Nom}\{\text{지}\}] \\ \text{Progress}[\text{어}] \\ \text{Desire}[\text{구경}] + \text{Aux} \\ \text{Intention}[\text{겠}] + \text{Aux} \\ \text{Retrospect}[\text{아/어, 서}] \\ \text{Presumption}[\text{키}] \end{array} \right] \right] \text{Q/냐/} \\
 (2) \text{ Vst}[+Action] \text{ Afx} & \left[\left[\begin{array}{l} \text{Expectation}[\text{ㄴ}] \\ \text{Progress}[\text{았/었}] \\ \text{Desire}[\text{구경/고경}] + \text{Aux} \\ \text{Intention}[\text{겠}] + \text{Aux} \\ \text{Persumption}[\text{키}] \end{array} \right] \right] \text{Q/가/} \\
 (3) \text{ Wh} \left[\begin{array}{l} \text{무시게} \\ \text{어더} \\ \text{어느 제} \end{array} \right] \text{ Vst}[+Action] \text{ Afx} & \left[\left[\begin{array}{l} \text{Progress}[\text{ㄴ, 았/었}] \\ \text{Retrospect}[\text{안, 란}] \end{array} \right] \right] \rightarrow \text{Q} \left[\begin{array}{l} \text{/니/} \\ \text{/더/} \\ \text{/다/} \end{array} \right]
 \end{aligned}$$

2) Style form : B type ($N_1 < N_{2.2}$)

$$\begin{aligned}
 (1) \text{ [+Action] Afx} & \left[\left[\begin{array}{l} \text{Retrospect}[\text{때, 디}] \\ \text{Persumption}[\text{베}] \end{array} \right] \right] \text{Q/가/} \\
 & \left[\begin{array}{l} [\text{sf}_H / \text{ㅁ} / \text{Progress}[\text{ㅂ}]] \\ [\text{Desire}[\text{구경}] + \text{Aux}, / + \text{sf}_H[\text{수/우}]] \text{Q/가/} \\ \text{Intention}[\text{겠}] \end{array} \right] \\
 (2) \text{ Vst}[+Action] \text{ Afx} & \left[\left[\begin{array}{l} \text{Progress}[\text{ㅁ서}] \\ \text{Retrospect}[\text{서}] \\ \text{Compection}[\text{브러서}] \end{array} \right] \right] \text{Q/마썸/}
 \end{aligned}$$

III) In this study, Imperative endings of dialect is caused by a symmetrical imperative endings, rising intonation(/) and falling Intonation(\).

(1) Style form : A type ($N_1 > N_{2.1}$, $N_1 = N_{2.3}$)

$$\text{Vst}[+Action] \text{ Afx} \left[\left[\text{Imperative} \left[\begin{array}{l} \text{/라/} \\ \text{/계/} \\ \text{/아, 어/} \\ \text{/십시오/} \end{array} \right] \right] \right]$$

(2) *Style form : B type ($N_1 < N_{2.2}$)*

$Vst[+Action]Afx \left[[sf_{II}/\text{ㅅ}/] [Imperative/ㅅ/] \right]$

IV) Propositional endings are not various, had a character which is contrasted with intonation.

1) *Style form : A type ($N_1 > N_{2.1}, N_1 = N_{2.3}$)*

$Vst[+Action]Afx \left[[Propositive \left\{ \begin{matrix} \text{ㅅ} \\ \text{ㅅ} \end{matrix} \right\}] \backslash \right]$

2) *Style form : B type ($N_1 < N_{2.2}$)*

$Vst[+Action]Afx \left[[sf_{II}/\text{ㅅ}/] [Propositive]/\text{ㅅ}/ \right]$

V) Exclamative ending is made use of, in addition to, /-Ke/ form of Korean language /-Kuna/ or Predicative ending /-(ø/ is made use of terminal juncture. So it is very simple form.

$Vst[+Action]Afx \left[[sf_A \left\{ \begin{matrix} \text{ㅅ} \\ \text{ㅅ} \end{matrix} \right\}] \left[\left\{ \begin{matrix} \text{Progress} \\ \text{Completion} \end{matrix} \right\} \right] [Exclamative \left\{ \begin{matrix} \text{ㅅ} \text{나} \text{ㅅ} \\ \text{ㅅ} \text{ㅅ} \end{matrix} \right\}] \right]$